

# 학교도서관 활성화의 바른 길

류주형 | 중대부중 도서실 담당교사 · 전교조 참실위원회 학교도서관분과장

여러 시민단체의 결성과 언론의 보도 등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학교도서관의 목적이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학습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아직도 전산화만 되면 도서실 운영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가 많이 있다. 담당 교사들이 도서관 일을 하면서 배운 건 지독한 외로움이었다고 토로할 정도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교사들이 많아서인지 도서관이 갖춰졌는데도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 과제를 내거나 교과 관련 참고도서를 읽히는 교사들을 보기가 쉽지 않다. 학교도서관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사서교사나 담당교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교사들도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만 도서관 이용법을 교육할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들에게도 학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는 연수를 마련해야 한다. 또 교육 현장에서 학교도서관이 제 구실을 할 때까지 교사들이 학교도서관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도 챙겨야

한다. 학교를 평가할 때도 도서관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배점을 다르게 부여하고 평가해야 한다.

전산화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담 사서교사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도서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입력 수준이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입력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색인어(주제어) 입력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산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검색이라고 본다면 단순한 서명이나 저자명 검색만으로는 교수학습지원센터로서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없을 것이다.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제목만으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학습에 필요한 책들을 교사나 학생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색인어 입력을 제대로 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러나 과목마다 어떤 색인어가 필요한지도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고, 또 실제로 색인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입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국립중앙도서관도 색인어는 단순히 책이름에서 따온 것을 입력한 수준이다. 제대로 된 학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서 교사가 배치되고 자료 구입 예산도 증액되고 전산화도 돼야겠지만, 잘 입력된 자료DB를 갖추는 것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서 학교도서관 관련 전담 부서를 두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도서관리프로그램 개발, 교과 관련 색인어 정리 등 DB 입력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이뤄질 때 학교도서관은 자기 주도적으로 자료를 찾아 과제를 해결하는 학생들로 넘쳐날 것이다. 또 관련단원의 참고도서는 없는지 찾아보고, 자료가 없으면 사서 교사에게 적극적으로 구입을 요청하는 교사들로 붐비는 활기찬 곳으로 변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학교교육은 더욱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통권 제325호 | 2002년 6월 5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이사 ————— 임홍조

편집자문 —————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 박천홍

기자 ————— 강성민 김장근

차정신 박옥순

사진 ————— 김경록

편집디자인 ————— 정병규디자인 | 안지미

박기아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 1987년 6월 9일·다 435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정기구독문의

FAX ————— 722 - 1174

E-mail ————— book732@chollian.net

하이텔 ————— chulpan

천리안 —————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덕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01-0219-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